

굳은 신념으로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다



굳은 신념으로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다



신념 [belief, 信念]
굳게 믿는 마음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의심치 않고
자신만의 굳은 신념으로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 길을
열어갑니다.



GFEZ JOURNAL
Vol.58 | 2015+WINTER
WWW.GFEZ.GO.KR

발행인 권오봉(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김진근((주)Kmc21c 대표이사)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통권 제58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061.760.5091~3) 기획·취재·편집·디자인·인쇄 (주)Kmc21c(055. 283. 9062)
간행물 등록번호 전남. 바00035 <GFEZ JOURNAL>은 홈페이지 www.gfez.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널에 실린 글과 사진은
GFEZ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GFEZ JOURNAL>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GFEZ JOURNAL>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열정을 담아 독자들에게 드리는 저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
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
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C O N T E N T S

Special Theme 'BELIEF'

신념의 날개짓	굳은 신념으로 만드는 새로운 길	02
창조와 사람들	목표에 대한 신념의 중요성	04
CEO Column	魂(魂) GFEZ의 신념	06

With GFEZ

GFEZ를 전하다	HIGHLIGHTS	07
오늘을 말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재도약 절실	10
GFEZ를 만나다	기업탐방 수출로 급성장하던 강소기업 신사업 개발로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 (주)스틸플라워	12
울촌지구를 알리다	인 터 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의 최적지 GFEZ	16
	동북아 최고의 제조업 클러스터 울촌지구	18

Enjoy Life

광양만의 여름	겨울따라 겨울따라	20
건강주치의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도 피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26

Trend Issue

생각을 묻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과 시사점	28
지식을 나누다	해양플랜트산업으로 가는 길	30
정보를 전하다	스토리는 상품의 혼(魂)이다	32



신념의 날개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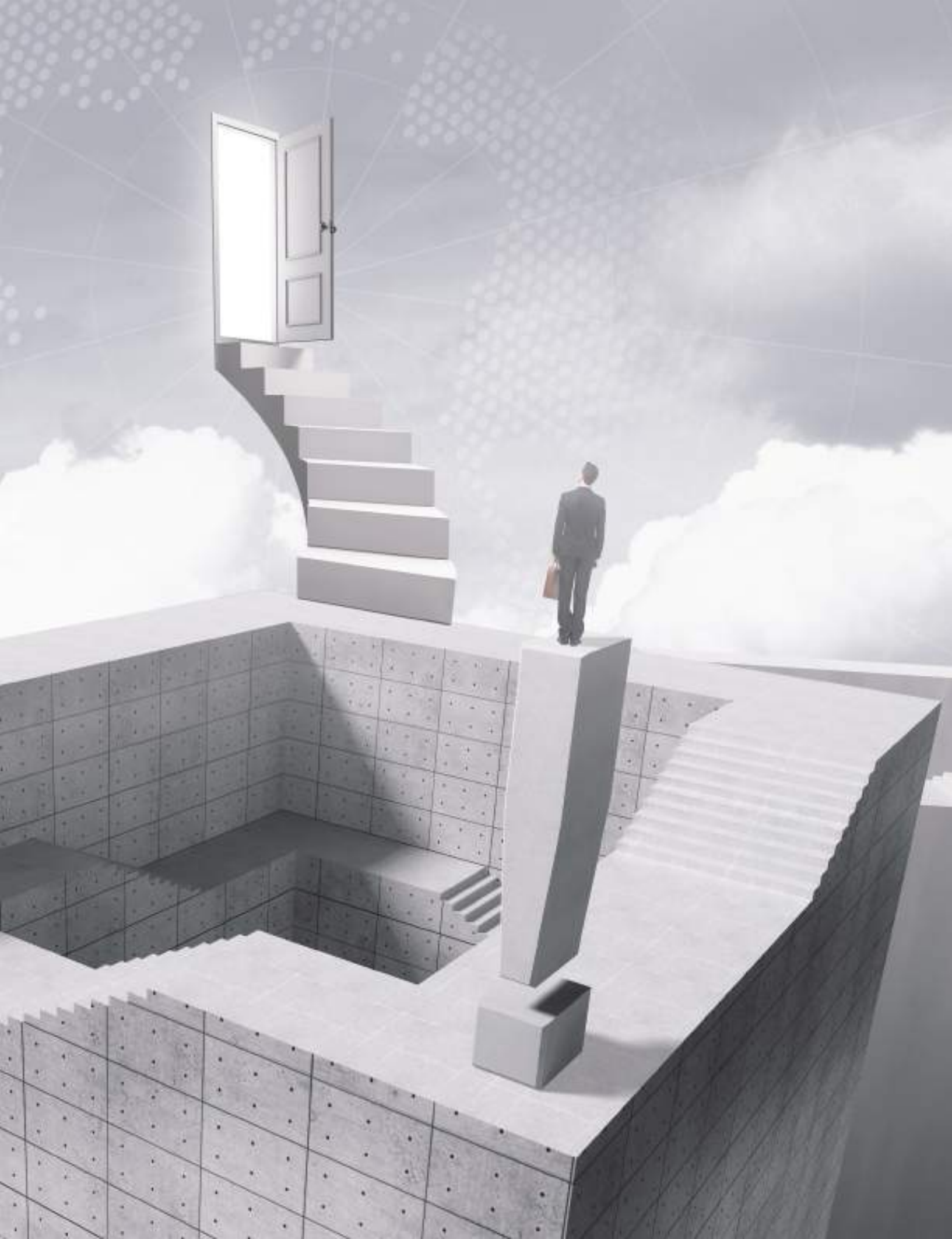
기획 · 디자인 _ 편집실

굳은 신념으로 만드는 새로운 길

사람은 지금과 다른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잠재의식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자리에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그 일은 절대 성공한다는 보장을 누가 확실히 해준다면, 당신은 서슴지 않고 나설 것이다.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당신의 신념을 믿어라. 굳은 신념이 당신의 새로운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노만 V. 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기술 50’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은 우리 안의 잠재력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념과 믿음의 힘으로 달려왔습니다. GFEZ의 굳은 신념과 믿음으로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를 이루고, 맞춤형 전략으로 투자유치 또한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념과 사람들

기획 · 디자인 _ 편집실

목표에 대한 신념의 중요성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는 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자신의 굳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하다.

Belief

클로드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에서 잠재의식은 스크린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만일 영사기나 원본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투영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거꾸로 뒤집히거나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이나 두려움, 역설 등은 모두 자신이 애써 투영하려고 하는 그림을 흐려 놓는다. 위대한 예술가나 문필가, 발명가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마음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

성공과 행동의 신념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각자 자기의 꿈을 추구하도록 하고 싶다. 나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일찍부터 나를 이끌어 주는 좋은 인생의 선배나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부유하게 태어나지도 못한 서민출신이다. 그럼에도 나는 큰 꿈을 꿀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의지를 갖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하워드 솔츠
스타벅스 회장



“

결국에는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마크 주커버그가 만드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도 있다. 사용자의 요망을 앞서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당혹감이나 반발이 예상 이상으로 커지면 문제로 발전한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하다. 비난은 받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옳바른다는 강한 확신과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성공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또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한다.

”

“

명확한 신념과 노력

나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논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갖는다. 또한 꿈을 갖되, 항상 그 꿈을 현실에 비추어 생각한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지레 포기하거나 우두커니 앉아서 공상에 잠겨 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우선 나는 목표를 정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왜냐하면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대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일단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CEO Column

글 _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魂_(훈) GFEZ의 신념

“어떤 길도 나아가지 않으면 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노르웨이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실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굳은 ‘신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신념도 가슴에만 묻어두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의 신념을 발표하고 실행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실행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능성 화학 소재 및 첨단부품 소재로 특화된 세풍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럽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프랑스 화학산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순천 해룡산단에 뿌리산업을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관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여수화양지구에는 테마가 있는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외 및 중화권 자본이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동시에 국제 공모에 나섰습니다. 또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울촌산단 입주 4개 기업과 395억 투자협약체결은 큰 성과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창조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 협력하며 달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굳은 신념으로 모든 잠재력과 혼을 담아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진정한 ‘신념’입니다.

HIGHLIGHTS

01

광양청 조합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제78회 정례회 개최, 개발사업 추진상황 현장확인

광양경제청 조합위원(서동욱 의장, 전남도의원)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제78회 조합회의 정례회를 갖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그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단개발 및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개발지연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02

광양만권 경제청, 세풍산단 조성 및 유럽기업 유치 활동

– 기능성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 홍보 및 프랑스 화학산단과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및 툴루즈, 독일 뮌헨, 오스트리아 지역을 순회하며 기능성화학소재 및 첨단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광양경제청의 금번 유럽기업 투자유치활동은 프랑스 녹색화학클러스터, 툴루즈 화학혁신센터, 툴루즈상공회의소, KOTRA현지사무소 등 방문국가에 기반을 둔 경제단체의 협력으로 광양만권 산업인프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특히 세풍산업단지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및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유망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과 잠재투자기업 초청 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짧은 일정 속에서도 소기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03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4개 기업 395억원 투자, 고용인원 130명 일자리 창출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6일 울촌산단에 입주할 4개 기업과 395억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실현 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피앤에스(주), (주)동양원텍, (주)승산팩, 백년야채(주) 등 4개 기업대표, 자유무역관리원장 외 다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관이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HIGHLIGHTS

04

광양경제청,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친환경 바이오화학 중소·벤처 기업 창업 후 광양만권에 투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16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호간 업무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간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바이오화학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광양만권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05

광양 세풍산업, 10월말 본격 착공... '이주대책' 협상 마무리

– 11월 중 주민이주 시작... 토지보상도 90% 이상 끝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도약의 새로운 핵심거점으로 개발될 광양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0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세풍산업 단 조성을 위한 1단계 토지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된 데 이어, 난항을 거듭해온 주민이주대책 문제도 최근 해결되어 최근 합의서 작성까지 마무리했다.

광양세풍산업단지는 총 5천219억원의 사여비가 투입돼 3.0km²(91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지난 7월 기능성화학소재 R&D센터 건립 등 602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이 확정됐다.

광양경제청과 세풍산업개발(주)는 세풍단지 성공적 개발을 위해 투자설명회(IR)를 11월 24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했다.



06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취업연계와 기업 인력난 해소

– 광양경제청, 지역대학생 광양만권입주기업 현장체험 학습 실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졸업을 앞둔 지역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0~12월중에 8주 동안 광양만권 입주기업에서 기업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생은 이공계 학생으로 기계, 전자정보통신, 컴퓨터제어, 용접, 조립 등 다양한 직종에서 실습을 하며 참여 기업은 이들 학생과 함께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한다. 현장체험 학습 종료 시 참여학생은 취업을 기업은 맞춤형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산·학·관 상생문화를 활발히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07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총력 추진

– PM별 타깃기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8일 투자유치 담당 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국 내·외 타깃기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인 2조원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투자유치 관심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123개 기업에 대해 상담 추진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향후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PM간 협업을 통한 투자실현 촉진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08

광양만권 경제청, 세풍산업 조성 및 일본기업 유치활동

–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 홍보 및 부품소재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및 도쿄지역을 순회하며 기능성화학소재 및 첨단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광양경제청의 금번 일본기업 투자유치활동은 광양만권 산업인프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특히 세풍산업단지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및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유망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과 잠재투자기업 초청 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했다.

09

여수 화양지구 사업시행자 국제공모 추진

– 화양지구 개발 본격적으로 재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화양지구 관광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국내

및 국제공모를 2015년 10월 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국제공모는 자금력 있고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하기위한 것으로 3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10

광양경제청, 화양지구 중국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중국 베이징, 텐진 지역 부동산개발기업대상 화양지구 국제공모 홍보와 투자설명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수도인 베이징과 북중국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4대 직할시인 텐진을 방문하여 관광·레저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화양지구 국제공모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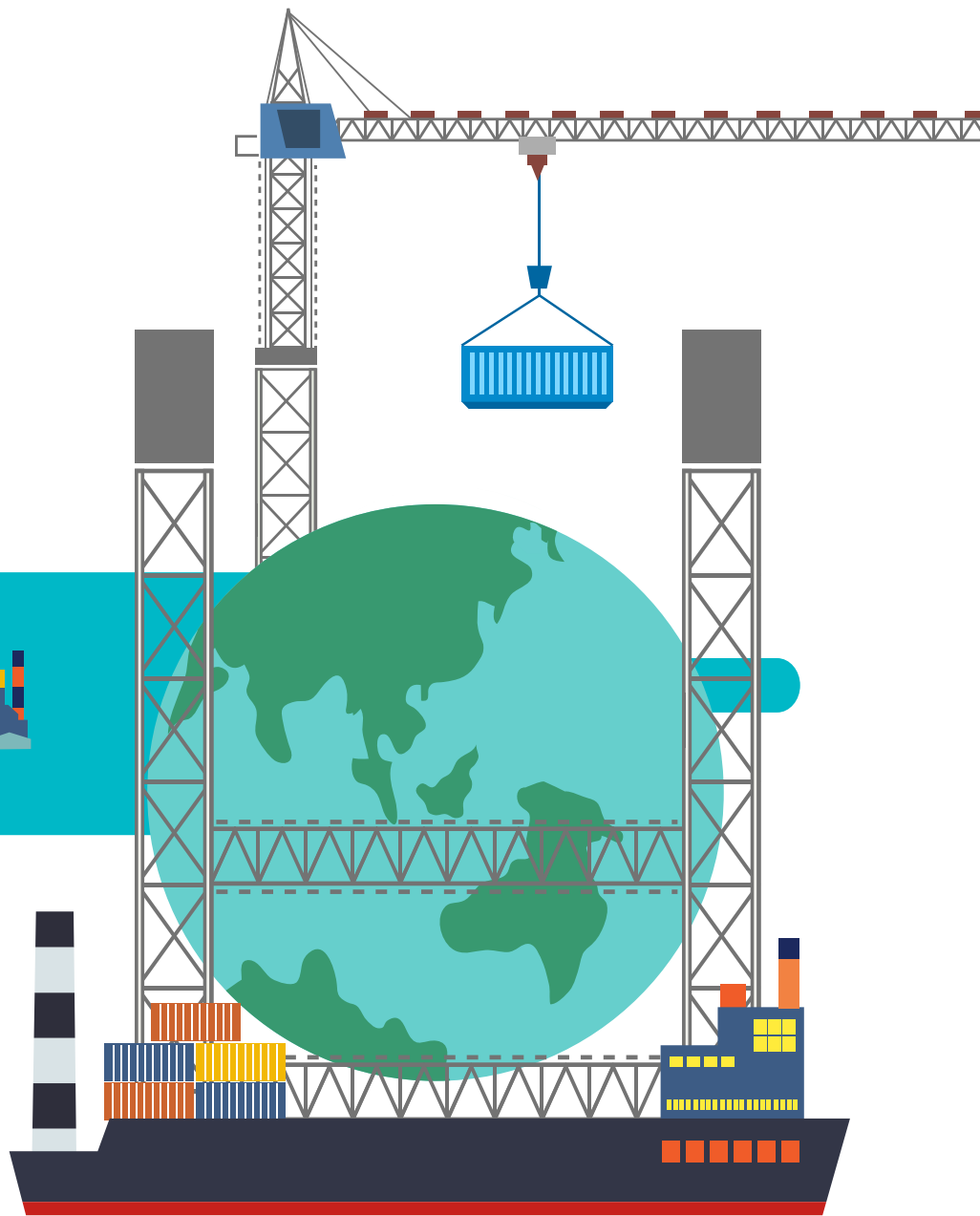


오늘을 말하다

글 _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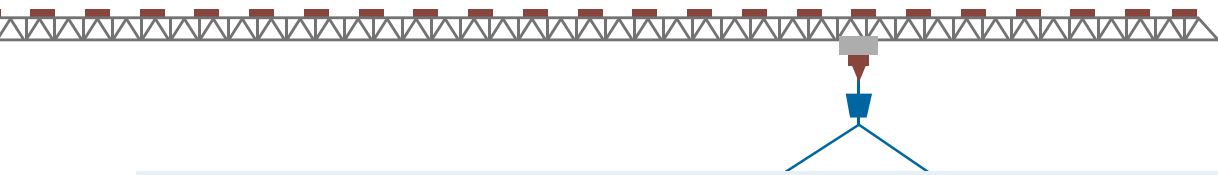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재도약 절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어 당초 5개지구 21개 단지,(77.69km²) 중 12개 단지 46,45km²를 개발 완료 및 개발중에 있다. 2015년 현재 개발비율은 59.7% 전국 평균 개발비율 수준과 비슷하며, 기업유치는 194개사 154억불 투자 실현으로 목표 250억불 대비 61.6%를 달성하여 48,213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광양항 컨부두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연속 200만 TEU를 달성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개발 및 투자성고가 다소 저조한 편이다. 특히, 배후단지화 및 문화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투자자 발굴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간 비전과 전략 등의 유사·중복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경제자유

구역 내 앵커기업 부재로 연관 외국투자기업 유치 난항 및 수도권과의 원거리에 위치해 접근성과 기업 투자환경이 불리하다. 또한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1차 화학과 제철관련 산업만으로는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12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적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산업의 성장거점,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으로 재도약이 필요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광양제철~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여수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



를 활용한 미래 소재산업 성장의 전초 기지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즉, 광양만권의 석유화학, 철강연관산업 등 장치제조업 중심에서 금속·신소재를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하여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형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간재, 복합재 등 고부가가치 탄소 신소재산업과 연계 육성과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중소·중견기업을 첨단소재부품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학소재 산업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천연물 친환경 생명소재와 바이오메디컬소재, 해양바이오소재 등을 핵심특화분야로 하는 해양바이오신소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해룡전자부품단지 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기반으로 신소재 산업과 금형·주조·열처리 등 신제조 기반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세풍신소재산단을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또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소재부품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처럼 선박수리 부품사업과 선박개조 부품사업, 풍력플랜트 부품산업 등 중소형 해양플랜트 및 조선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중소형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의 조선 및 해양플랜트 시장을 대상으로 중소형 소재산

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정밀기계 등 제조업 고도화 및 국내·외 산업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수출입 식료·산업포장재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패키징 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포장용 소재, 포장기기, 포장 정밀기기, 포장디자인 기능을 황금산단으로 일원화·집중화하여 광양항 수출입 물류 창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복합물류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재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항을 태평양~동북아~유럽~북극항로를 연계할 新 해상 물류 루트의 컨부두 환적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와 환적화물중심의 해운물류, 원자재 중계무역 등으로 물동량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기기·장비산업, 해양식품산업, 해양에너지, 선박·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해양경제특구” 지정과 “한·중 열차페리 전용항”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위상제고가 필요하다. 광양항 서측 복합물류단지의 특성화 존(Zone)에 적합한 물류산업 활성화와 배후지 입주자격 완화로 수출 중심의 제조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광양항 물류기능 고도화를 위한 지식정보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물류·교역이 가능하도록 복합형 비즈니스 지대를 조성할 것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제수준에 맞는 교육·의료환경 및 국내·외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화학·철강소재 및 물류 관련 국내·외 교육기관과 해외대학 분교, 해양플랜트 특화 대학원 등 유치와 함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구역 내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를 개설하여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대예코타운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자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발자본 유치채널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에서 중국 동북권, 화교권, 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홍보 콘텐츠 내실화와 프로모션 활동도 불특정 다수의 형식적인 IR(Investor Relations : 기업설명회)은 지양하고, 기 발굴된 진성 투자자와 개별 미팅 형식의 깊이 있는 IR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거점으로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화양네이컬쳐·두우레저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GFEZ를 만나다

취재 · 글 _ 정현수

경남도민일보 출판미디어국 부장



수출로 급성장하던 강소기업, 신사업 개발로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 (주)스틸플라워

1999년 설립한 회사가 설립 5년 만인 2004년 '500만불수출탑'을 수상하고 이어서 이듬해인 2005년엔 2000만불, 2006년 3000만불, 2007년 5000만불, 2008년 7000만불, 2009년 1억불, 그리고 3년 후 2012년 2억불수출탑을 수상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는 필시 보통 기업이 아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김해와 포항, 그리고 순천 해룡단지에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스틸플라워(대표 김병권)가 수출로 기업을 급성장시킨 바로 그 주인공이다.

스틸플라워는 김해와 포항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해오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 201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내인 순천시 해룡일반산업단지 내에 제3공장을 신축했다.

대체 무엇을 생산하는 기업이기에 이토록 거침없이 성장하는 것일까, 생산현장인 순천공장을 찾았다.



01 강관SAW용접 02 배관야적 03 용접부위 확인하는 기술자들

(주)스틸플라워는?

1999년 스틸플라워 설립
2002년 만불 수출의 탑 수상, ISO9001:2000 인증 취득
2003년 진영공장 준공
2005년 벤처기업 선정
2006년 기술연구소 설립
2007년 포항공장 준공
2008년 ASME 'U' 'S' 'PP' 인증 획득
2009년 역불 수출의 탑 수상, 코스닥 상장
2010년 KOTRA 보증브랜드 기업 선정, 순천공장 준공
2011년 철강산업훈장 수상
2012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3년 World Class 300기업 지정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놀란다. 제품 적재장으로 쓰이는 공장 앞 마당에는 거대한 배관들이 즐비해 있다. 악수로 인사를 나눈 김호곤 공장장은 “이곳은 주로 후육강관을 만드는 곳”이라고 소개한다.

후육강관이란 20t, 즉 20mm 이상의 두께가 굵은 철판으로 만든 관을 뜻한다. 이런 후육강관은 어디에 쓰일까? 최근 스틸플라워가 선 박해양연구소에 8인치 강관을 납품한 사실이 뉴스를 탔다. 국내 최초의 8인치 SAW 강관으로 라이저 강관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찬사도 뒤따랐다.

라이저 강관이란 시추선 등에 쓰이는 것으로 드릴관 바깥을 둘러싼 관이다. 진흙에 밀려 이 관을 통해 드릴에 의해 분쇄된 광물 등이 밀려 상승하게 되어 있다. 스틸플라워는 전기저항으로 자동용접이 불가능한 두꺼운 파이프를 아크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SAW강관 첫 납품 계기 심리스 대체 기대

스틸플라워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SAW(submerged arc welding) 방식 용접에 있다. SAW용접은 다른 말로 잠호용접이라고도 한다. 용접할 부분에 분말용재를 쏟아부으면서 전기스파크로 열을 올려 용접을 하는 것이다. 용접선이 뚜렷한 게 특징인데 이렇게 용접된 부분은 오히려 용접하지 않은 부분보다 인장강도가 더 강해서 용접부위가 파손될 우려는 없다고 한다.

스틸플라워는 김해 진영과 포항, 그리고 순천에서 생산하는 강관의 지름이 구분되어 있다. 진영공장에서선 바깥지름이 14인치~66인치(355~1676mm) 크기의 파이프를 생산하고 포항공장에서선 14~30인치(355~763mm)를, 그리고 이곳 순천공장에서선 40~300인치(1000~7600mm) 크기의 강관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순천공장이 앞선 두 공장에 비해 최근에 지은 곳이어서 시설 또한 신형이어서 예전엔 열처리를 위해 제품을 포항으로 운송했으나 이제는

아니즈를 만나다

취재 · 문 정현수

경남도언론보도판미디어공부



01

다른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순천공장으로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스틸플라워가 SAW용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두꺼운 철판을 원통형으로 만드는 기술 또한 뛰어나다. 하나의 철판이 강관으로 형성되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켰다. 또한 심리스(이음매가 없는) 강관이 열을 가하며 늘어 만들다 보니 관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SAW 강관은 전혀 그럴 우려가 없으므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조기술로 스틸플라워는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에 매진해왔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 강관인 송유관, 그리고 토목·건축·철타·난간 등에 쓰이는 구조용 탄소강관, 공기·물·증기·기름 등의 배관용 탄소 및 합금 강관, 그리고 각종 플랜트 제품들을 생산해 수출했다.

스틸플라워의 뛰어난 밴딩 기술은 3D건축용 곡면 패널과 항공기 외장재 및 윈렛(날개 끝 꺾여 있는 부분)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안정된 기술력 바탕으로 내수용 신사업 개발 박차

수출 2억 달러까지 올리며 수출에만 집중하던 스틸플라워는 최근 들어 내수에 눈을 돌렸다. 유가 하락으로 오일국가들의 석유생산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스틸플라워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철 제소파블록과 지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이다.

풍력발전시설은 지난 2월 순천시와 투자 MOU를 맺고 현재 풍력발

01 공장내부 02 용접 03 소파블록
04 제품 확인작업 05 파이프코스터 설비



02

전타워와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다.

김호곤 공장장은 철제소파블록 사업을 강조했다. 소파블록(消波 block)이란 해안이나 방파제 등에 설치하여 파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테트라포드라고도 한다.

“기존의 콘크리트 소파블록은 내구성이 떨어져 큰 태풍이 불어 대형 파도에 파손되기 쉽습니다. 콘크리트 가루는 해양환경을 해치기도 하고요, 부서지지 않는 소파블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제 소파블록을 생산기로 한 겁니다. 후육강관으로 블록을 만들어 그 안에 콘크리트나 Bottom Ash(바텀애쉬)를 넣어 밀봉처리하면 수명이 반영구적이 됩니다.”

2000년 이후 이상 기후로 인해 초대형 태풍으로 기존 콘크리트 소파블록의 경우 내구성의 한계성이 있어 소재 중량이 대형화 되었으나, 국내에서의 생산한계로 대부분 일본의 기술을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소파블록을 일단 포항지역에 1,500개를 납품 할 예정이다.

“일단 포항에 1500개 납품 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은 태풍이 불면 파도가 크게 몰아치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아직도 콘크리트 소파블록을 선호해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인데 따지고 보면 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관리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철제소파블록보다 비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의 소파블록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스틸플라워는 지열발전시설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하동의 70~8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공할 계획이다. 지열발전이란 땅속 깊이 파이프를 넣어 마그마의 열을 활용해 난방을 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수출기업 스틸플라워는 이제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사업아이템으로 내수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여전히 수출에 비중이 크긴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 역시 미래산업이란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수출로 급성장하였듯이 이젠 내수로도 사업들이 급성장하길 기대한다.



GFEZ를 만나다

인터뷰 _ 김진근

GFEZ JOURNAL 편집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의 최적지 GFEZ

전 종 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광양경제청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광양만권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경쟁력 있는 산업·물류기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내 지구개발과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해 동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 GFEZ의 역할은?

L 광양경제청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광양만권의 천혜의 자연 조건과 경쟁력 있는 산업·물류기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내 지구개발과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해 동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L GFEZ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한·중·일 교역의 유리한 지역으로 제2항만인 광양항, 전주·광양,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KTX, 광주·무안·여수·사천공항을 이용한 국내외 접근이 용이하며, 여수석유화학 국가산단, 광양제철 등 국가 기간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지역입니다.

또한, 대도시권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지만 토지가격이 인천, 부산의 1/3수준으로 저렴하고 인근 국공립·사립대학이 소재하여 인력공급면에서도 풍부하고 우수한 자연경관과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등을 거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관광산업 발달 여건이 유리합니다.

G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GFEZ 주요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L GFEZ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현안으로는 여수 화양지구 개발, 세풍산단 조성, 여수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들 수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 자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개발지구를 복합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 모델을 마련하여 '15.10.5일부터 '16.1.4일까지 3개월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16.2월중 사업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사업시행자 선정과 금융약정(PF) 무산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3.0㎢(91만평)중 0.6㎢ (18만평)을 우선 착수했으며,

이 부지에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바이오 패키징 산업유치를 추진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산단 전체를 단계별로 개발해서 미래 신소재 산업단지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수 경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편입이 필요하며, 여수경도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 될 경우 고용창출 1만 8천여명, 생산유발 2조 4천억원, 부가 가치 7천 500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하고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 여수 화양지구에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관광단지와 다른 차별화된 유리한 점?

L 국제공모로 제안한 것은 5개 테마 지역을 제시하였고 문화·레포츠, 휴양·마리나, 쇼핑·레저, 골프 등복합관광 레저 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 22호선과 국도 77호선 등이 완료되면 여수공항 및 해양엑스포역에서 20여분내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고항과 여수를 잇는 연륙·연도교 11개소와 해상도로 42km는 화양지구가 남해안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또한 화양지구가 개발되면 여수엑스포 개최지,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순천만 국가정원 등 기존의 남해안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시너지가 크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에서 매입한 토지를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인수 승계하여 개발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매입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G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L 광양 세풍산단은 금융약정(PF)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일괄개발 방식 대신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금년부터 전체

3.0㎢(91만평)중 0.6㎢ (18만평)을 우선 조성하여 17년 6월까지 602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기능성화학소재 연구센터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소재 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외국인 전용산단, 바이오패키징 소재기업, 광양제철 연관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 될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은 현 정부 대선공약인 ‘광양만권미래형 소재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현안사업으로 기존 범용 화학소재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질적 전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화학소재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풍산단 조기개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24일 유관기관,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세풍산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4개기업과 MOA,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풍산단 1단계 우선개발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나머지 부지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20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미래신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명품 산단으로 개발 할 계획입니다.

G 끝으로 지역사회 당부사항이 있다면?

L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인프라, 여수석유화학, 광양제철소 등 국가기간사업과 연계한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기능성화학 클러스터, 바이오패키징 등 신산업, 국제적인 문화관광과 기업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GFEZ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단체, 주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협조해 주시면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춘지구를 알리다

글 _ 편집실

동북아 최고의 제조업 클러스터 울춘지구

울춘지구는 울춘 제1·2·3일반산업단지
와 울춘항만부지 등 4개 단지 27.79
km²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항만물류
의 중심지인 광양항과 단일공장 국내
최대 조강생산능력을 갖춘 세계1위의
POSCO 광양제철소, 270여개의 국내외
석유화학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국가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제조업 입
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3개의 공항(여수, 광주, 사천)이 위
치하여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
하고, 고속도로(호남, 남해, 전주~광양, 목
포~광양) 4개, 국도 8개, 국가지원 도로 5
개 노선의 도로망, 산단 인입철도 및 컨테
이너 서측 인입도로 등 2개 노선 신설, 그
리고 전라선, 경전선의 철도망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 등 동서남북 방향으로 전방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송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현재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업 업체를 비롯

한 각종 철강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
고 있어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산업의 메카 “울춘 제1일반산업단지”

울춘 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시 울춘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원을 2018
년까지 총사업비 12,564억원을 투자하여
911만m²을 개발하고 있다. 1997년 2월 분
양을 시작으로 총 유상공급면적 635만m²
중 77.2%인 490만m²를 104개 업체에 분양

하였으며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문의가 쇄
도하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8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는 가
운데 911만m²을 매립하여 현대제철, 오리엔
트조선 등 10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소재·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남 신소재기
술 산업화지원센터와 전남 테크노파크를
건립하고 산단 조기분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1 울춘지구 02 울춘 제1산업단지

03 울춘 제2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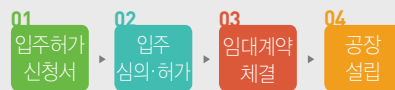
저렴한 초기비용 “울춘자유무역지역”

울춘 제1일반산업단지 내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0.34km²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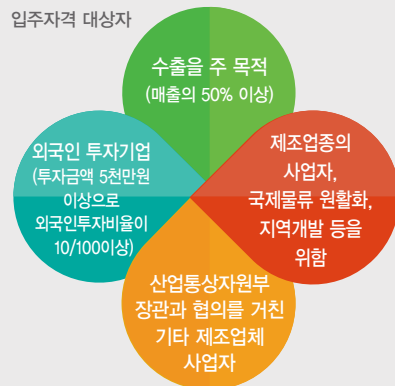
울춘자유무역지역은 울춘 제1일반산업단지 내 7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 0.34km²의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업종(금융업, 보험업, 세무업, 회계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부지면적 80,483m²)부지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아파트형 표준공장(부지면적 : 12,732m²) 및 공장부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공장용지(부지면적 260,761m²)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미국기업인 (주)한국체서피크의 첫 입주 이후 국내기업 1개사, 외국기업 8개사가 입주 중이며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축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더욱 원활한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절차



입주자격 대상자



- 자유무역지역의 임대기간 50년(연장가능)
- 임대료는 월 61원/m²

생산과 선적을 논스톱으로 “울춘 제2일반산업단지”

울춘 제2일반산업단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광양항 유지조절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 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여수시 울춘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에 총사업비 9,269억원을 투입하여 3.79km²를 개발할 계획이며, 기계, 전자·전기, 비금속광물 등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2010년 9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사업참여 의향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

고 2012년 5월 특수목적법인 울춘제2산업단지개발(주)를 설립하였고, 2013년 4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해양수산부의 준설토 투기 완료 시점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전면에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30년까지 울춘항만부지(513만m²)가 개발될 예정이다.

“울춘제3일반산업단지”

울춘제3일반산업단지는 울춘 제1·2산단의 중간지역으로 여수시 울춘면 일원에 총사업비 1조 3,555억원을 투입하여 976만m²를 조성할 계획이며,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학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울춘1·2산단 활성화 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울춘지구는 저렴한 분양가(임대료)와 광양만권내 기존 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 제조업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다. 세계의 우수 기업들이 기업친화적 환경이 빠짐없이 갖춰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울춘산단과 함께 성장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기대해 본다.

광양만의 겨울

글 · 사진 _ 편집실

겨울따라 걸음따라

단풍이 남긴 자리가 이제는 겨울에게 내어주었다.
겨울의 색으로 가득찬 지리산을 함께 만나보자.



민족의 영산, 지리산

지리산은 나무와 숲, 꽃과 새
그리고 사람들을 품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노고단 산허리를 감돌아 흐르는
구름바다가 한 폭의 그림되어 수를 놓는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 서서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붉은 노을에 마음을 던진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 서서
희망과 성취를 위해 찬란한 태양을 바라다 본다

이렇게 지리산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어우러지는 힘찬 그 무엇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간다

바람과 구름이 만나는 그곳에서
해가 뜨고 저물며 산이 살아간다

우리 또한 이곳에서
삶을 빛으며 살아간다

GFEZ 편집장 김진근





GFEZ 저널 겨울호 테마가 혼(魂)이라서 민족의 영산 지리산 탐방을 마음먹었다. GFEZ의 성과와 희망을 담은 의미로 지리산 노고단의 일몰과 일출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다. 지리산 산행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지리산의 관문으로 일몰과 일출, 그리고 운해가 절경인 노고단, 삼성재 코스로 정했다.

창원에서 자동차로 삼성재 휴게소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 반경 노고단을 향해 출발했다. 평일인데도 많은 인파로 분비었고 1시간 정도 등산하여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하여 화장실도 다녀오고 저녁에 묵을 숙박 정보를 확인하고 노고단 고개를 향해 올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후 3시 30분 부터는 노고단 정상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 시각 골짜기를 휘어 감는 구름바다와 구례 쪽으로 펼쳐진 운해가 눈앞의 노고단 정상을 뒤덮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노고단 고개 돌탑을 구경하며 일몰을 기다렸다. 서쪽으로 노을빛이 들어났다. 산골짜기를 잔잔하게 뒤 덮고 있는 구름바다로 인해서

지리산 노고단 탐방

선명하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노을은 몽환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 5시경 노고단으로 향했다. 또 다시 노고단 고개에서 멈추어야 했다. 오전 9시 30분 부터 노고단 정상 출입구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어제와 같이 노고단 고개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해는 구름바다에 가려서 붉은 운해를 만들어 내면서 나타났다가 숨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 오전 9시쯤 노고단 정상을 향해 출발 하는 순간, 붉은 해가 구름 속에서 나와 노고단을 비추고 있었다.

노고단, 해발 1507m, 천황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로 옛날 지리산 산령인 노고할머니를 모시는 재단이라고 해서 '노고단'이라 붙였다고 한다. 노고단 돌탑은 신라 화랑들이 수련하면서 탑과 담을 쌓고 천지신명과 노고할머니께 나라의



02



01

03

01 노고단 새벽 02 노고단의 아침 03 노고단의 눈꽃 이야기
04 삼성궁 전경 05 삼성궁 돌탑 06 쌍계사 전경

번영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노고단 돌탑 뒤로 돌아가면 건너편에 반야봉이 보이고, 저 멀리 지리산 최고봉이 보인다. 산 아래 골짜기의 구례마을, 섬진강을 내려다보면서 이쪽저쪽 보이는 풍경은 참으로 민족의 기운이 넘치는 영산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지리산 자동차 여행

지난 가을의 낙엽들이 발 밑에 밟히는 소리에 겨울이 왔음을 느낀다. 얼마전까지 붉게 물들인 단풍들은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지리산의 주변을 자동차로 여행해보자. 지방도로가 잘 이어져 있기에 드라이브 코스로 멋진 경관들을 볼 수 있고, 충분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겨울여행이 될 것이다.

하동구간

(청학동—삼성궁—도인촌—화개장터—쌍계사)

청학동에서 '삼성궁'과 '도인촌'까지는 겨울나무로 펼쳐진 오르막길이 이어준다. 삼성궁에 관광 온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돌들을 여기에 다 가져다놨네”라고 하며 감탄하기도 했다. 섬진강의 물길을 따라 쌍계사를 향하다보면 화개장터가 나온다. 화개장터에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개장터에서 조금 더 이동하면 쌍계사에 들러 불일폭포를 볼 수 있는 등산로를 걸으며 겨울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04



05



06

구례구간 (사성암-화엄사-성삼재/노고단)

사성암 정상에 올라 섬진강 물줄기를 보면, 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잊고 섬진강의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멋진 경관이 주어진다. 기암절벽에 지어져있는 건축양식들에 감탄하고 섬진강의 물줄기에 한 번 더 감탄 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사성암에서 약 20~25분 이동하여 추운 날씨에 떨어진 낙엽들이 유난히 사그락 거리는 화엄사 계곡을 따라 화엄사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 올라 성삼재주차장까지 이동하여 노고단을 오르면 힘들이지 않고 지리산을 느낄 수 있다.

남원구간 (광한루원-육모정/춘향묘-정령치-실상사)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원을 시작으로 남원구간을 시작한다. 남원 주천면에서 조금 올라가면 육모정과 춘향묘를 만날 수 있고, 흐르는 구룡계곡의 2곡인 '용소'의 차가운 물 소리가 겨울의 추위를 더한다. 정령치로 가기위해선 고불고불한 길을 한참을 오르는데, 높으면 높을 수록 내려다보는 경관은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정령치 휴게소에서 주차를 하고,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산 뒤에 산 그리고 산이 펼쳐지는 지리산을 보며, 누가 붓질이라도 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올라온 길을 굽이굽이 내려와 실상사 입구에 들어가면 호국사찰로 천년의 세월을 지내온 실상사만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01



02



03

함양구간 (오도재-벽송사/서암정사-칠선계곡)

구불구불 고갯길의 오도재는 뱀이 기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러한 길 덕분에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오도재를 넘어 만수천을 따라 겨울을 버티고 있는 나무들과 함께 한국 선불교 최고의 종가 벽송사까지 경관을 보며 올라가는 것이 좋다. 서암정사는 석굴법당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연암반으로 조각한 불상들이 있고, 극락세계를 그린 조각법당을 10년에 걸쳐 완성하니,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싸늘해지는 느낌의 경건함을 받기도 했다. 그 시간의 흔적을 고히 담은 듯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04

산청구간 (유림-동의보감촌-대원사-내원사)

유림방면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서 바라보는 작은 마을과 자연의 어울림이 눈에 들어온다. 산청의 최초 한의학전문 박물관 '동의보감촌'이 있는데, 박물관에 들러 구경을 하고 대원사로 향한다. 울거울의 멋진 장관을 가지고 있는 대원사에 도착하여 고갯길에 지친 몸을 대원사에서 치유받고 내원사로 향하면 된다. 내원골 삼거리를 만나 내원사에 도착하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을 느낄 수 있다. 내원사의 작고 오래된 느낌이 편안함을 들게했다.

지리산 드라이브 코스는 산을 오르고 이동하면서 아름다운 길들을 만나게 되며, 지리산이 보여주는 전경들을 보며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소개된 구간의 중간 중간 차를 세워 감상하는 것 또한 좋은 여행의 과정이 될 것이다. 지리산 드라이브 코스는 당신의 추억이 될 사진의 가장 멋진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05

01 사성암 02 광한루원 03 실상사 04 서암정사
05, 06 대원사

이미지 출처 _ 국립공원관리공단, 삼성궁, 쌍계사, 사성암, 광한루원, 실상사, 서암정사, 동의보감촌, 대원사

06



건강주치의

출처 _ 삼성서울병원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도 피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겨울철 더욱 건조해지는 피부,
과도한 난방사용으로 피부 질환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방법을 익히고
겨울철 자신만의 피부를 보호하세요.

❄ 난방용품의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추위를 녹이는 다양한 방한 용품뿐만 아니라 난로나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 비해 대기 중에 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진 겨울철에는 특히 이런 난방용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도하게 잘못 사용할 경우 습도가 더욱 떨어지기 쉽고, 건조한 실내 환경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안 피부관리로 유명한 연기자 고현정씨의 경우는 피부관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해도 히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도 건강에 적신호를 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여드름, 아토피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염을 유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피부건강을 위해서 겨울철 올바른 난방기기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과도한 온 열기기 사용으로 '열성홍반' 유발

난로를 지나치게 가까이 두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열성홍반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열성홍반'이란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43~47도 강한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홍반과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열에 노출된 부위에 붉은 반점 모양 병변이 나타나고, 점차 고리모양이나 나선모양으로 홍반이 진행되며, 혈관확장은 물론 갈색의 심한 색소침착이 생깁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며, 다리 부위에 나타나기 쉽고, 난로 외에도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매트를 고온으로 켜두고, 장시간 사용하거나 핫팩, 온찜질팩을 한 부위에 장시간 올려두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히터를 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겨울철 지혜로운 난방용품 사용법

하나. 난로나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는 고온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화상의 위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온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히터를 사용할 때는 실내습도를 40~60%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거나 틈틈이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 외의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25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 전기매트를 고온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넷. 실내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고, 대기 중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실내 온도 역시 20℃로 설정해 실외와의 온도 차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다섯. 손 난로 등 온도가 높은 난방용품을 신체에 너무 가깝게 접촉해도 그 부위의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거미줄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조함 속에 지친 피부 달래는 포인트 비법

히터 사용 빈도가 높은 사무실의 경우,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올리면 면역력 향상과 피부 수분유지 차원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도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물 마시기인데요, 일일 물 섭취 권장량은 1.5L이상으로 2L 가까이 매일같이 마셨을 경우 일주일이면 피부의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는 방법 잊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생각을 묻다

출처 _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본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 및 평가

투입 지표를 보면

첫째, (고정자산투자) 제조업은 높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5~2008년 대비 2010~2013년의 고정자산투자(누적)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 총투자액은 -9.1%로서 금융위기 이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제조업은 동 비율이 9.0%로서 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R&D) 제조업 R&D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2010~2013년 R&D 투자누적액은 2005~2008년 대비 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약업, 정보통신(CT), 화학업종은 R&D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업종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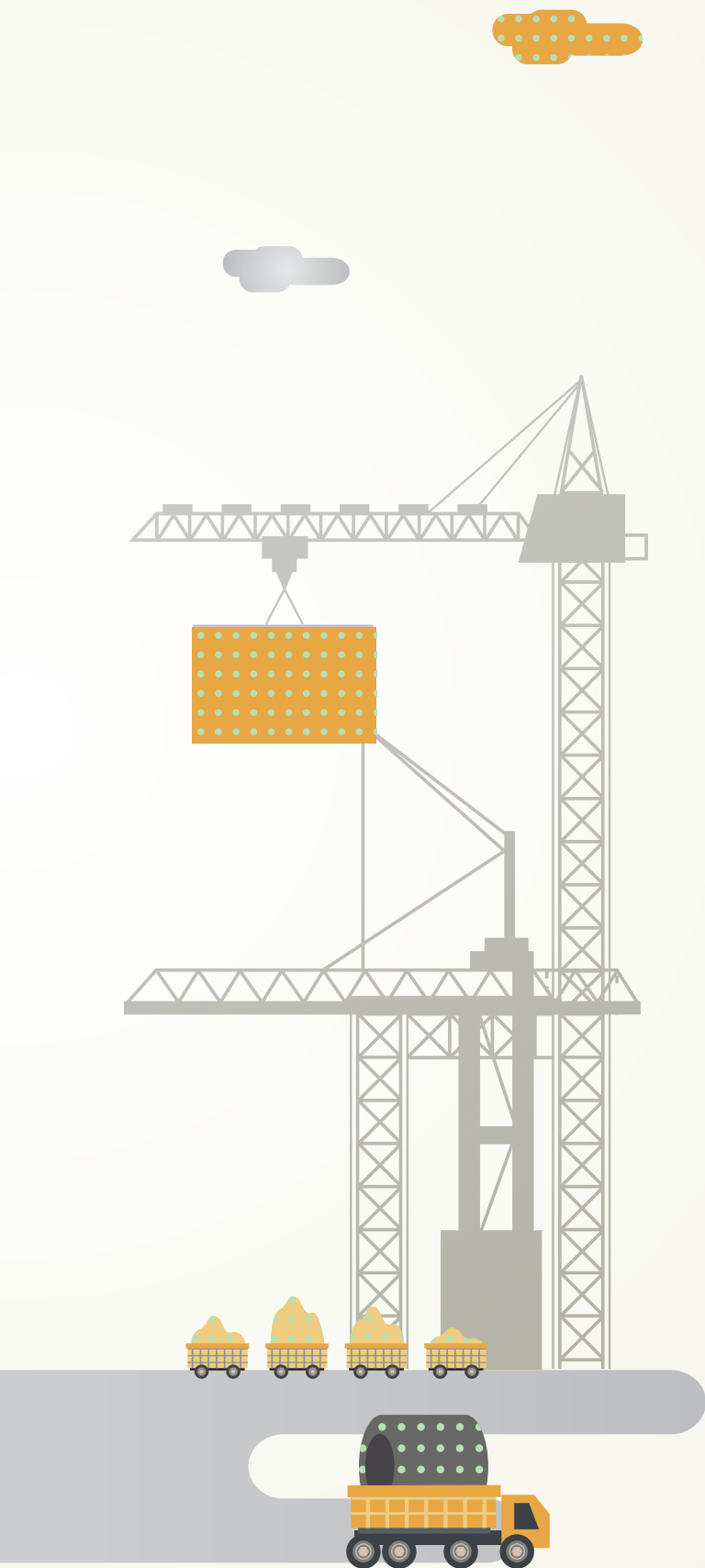
셋째, (정부R&D 투자) 미국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부문 R&D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 R&D는 2004~2008년 대비 2010~2014년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10.4% 늘었으나, 14개 R&D 부문 중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기술 R&D는 43.3%로서 아주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다.

다음으로, 성과 지표를 보면,

첫째, (창업) 제조업 사업체는 2013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흡하다. 미국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4년 4분기에 약 34만개소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약 36만개소에는 못 미친다.

둘째, (리쇼어링) 리쇼어링(외국인직접투자 포함)으로 2003년 대비 2014





년 일자리가 약 400% 늘고, 반면 오프쇼어링으로 70% 감소했다. 2014년에 오프쇼어링으로 3만~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증했다.

셋째, (고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규모에는 미흡하다. 제조업 고용이 2010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2015년 5월에 1,231만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월간 약 1,350만명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넷째, (생산성)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 내구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2007=100)가 2004~2008년 평균 97.1에서 2010~2014년 평균 108.3으로 나타나 생산성이 높아졌다.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제조업 전체는 2010~2014년 1.5%로서 2004~2008년 2.0%에 못 미치지만, 내구재 제조업은 2010~2014년 2.8%로서 2004~2008년의 1.6%보다 높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국 제조업이 느리지만 실적 회복(regaining)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여명기'라고 평가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핵심 지표인 일자리 증대, 고부가화, 첨단기술R&D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 창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 한국의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언

주요 제조강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진전될수록 한국 제조업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R&D를 비롯한 제조업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창업 및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제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제조업 기술력과 사업 플랫폼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흥국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해 경쟁 기반을 확보한 다음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조속한 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M&A, 현지업체와의 제휴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물량 투입에 의한 기술 확보형 R&D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하는 수요 지향형 R&D에 집중해야 한다

지식을 나누다

출처 _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으로 가는 길

최근 ‘해양플랜트’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만큼 해양플랜트가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해양플랜트란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운영되는 해상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을 의미한다. 해양플랜트의 생산, 운송, 설치, 운영, 유지보수는 물론 탐사, 시추, 설계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 해양플랜트산업이다.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신조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고, 중국 등 후발국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조선산업은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선시장에서의 기술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국내 조선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 영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시점에,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육상 유정 고갈로 인하여 해상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의 약 1/3이 해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해양플랜트 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0여년전부터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해양플랜트 분야의 R&D 투자 규모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국내업체의 10조원대의 적자 규모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요소기술 개발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이해된다.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보여준 실적과 상선대비 높은 규모의 매출액에 경도되어 경영진들의 판단착오도 실패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체구조물 제작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설계 기술과 각종 핵심 기자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은 세계 건조시장의 70~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탐사, 설계 엔지니어링, 설치, 이송, 운용과 기자재 부분 등 가치영역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건조 부분은 해양플랜트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율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건조이외의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 매출 위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설계엔지니어링과 운송, 설치, 운영 분야 등으로의 진입시도는 거의 없다.

국내 업체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이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업무수행에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자로 승진을 하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에는 70세가 넘는 엔지니어들도 자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의 생명은 길게 보아도 45세 전후에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상선분야에 비하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현재 국내의 인력운용 패턴으로는 선진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더불어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베테랑 설계인력으로부터 주니어 설계인력들이 심층적인 기술전수를 받게 되는 사내 교육(On-the-Job Training)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건조이외의 가치영역으로의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실행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집단의 분석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해양플랜트 현황 타개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 바 있다.

발전방안의 키워드는 “돈이 안 되고 종속적인” 이른바 ‘덩치 큰 OEM 생산업자’의 지위를 탈피하여, ‘돈이 되고 덜 종속적이고, 나아가

독립적인’ 상위단계 및 신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 는 것이다. 발전방안의 대원칙으로는

1) 상선분야에 올인할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여건, 2) 해양플랜트 부문 진출 및 경쟁력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추진패턴 및 방법으로는 1) 개별 전략 동시 추진 (세부영역내에서 선택과 집중 필요), 2) 단계적 순차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계전략 추진, 3) R&BD 모델로서 Track Record 확보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일정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행한 정책용역사업 결과보고서(성홍근, 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보를 전하다

글 _ 김진근

GFEZ JOURNAL 편집장

스토리는 상품의 혼(魂)이다

미래학자인 롤프 예센은 “정보화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래에는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만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스토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을 변화시키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스토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죽은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그 상품 가치를 부여하는 필수 요소가 스토리이다.

스토리 상품의 힘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남이섬은 아름다운 경치에 환상적인 스토리가 결합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접목되면서 이야기가 있는 남이섬으로 관광상품화 된 것이다.

스토리 상품의 힘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순천만을 세계적 생태습지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된 순천시 노관규 시장의 아이디어나, 함평의 낙후성을 오히려 천연자원이 그대로 보존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나비축제’라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낸 함평군의 이석형 군수 이야기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관광상품한 훌륭한 사례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활용함으로써 상품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도록 색을 칠해서 재미있고 아름답게 꾸미는것, 이것이 바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의 힘이다.

스토리 리더의 역할

주변에 스토리 소재가 많고 스토리텔링으로 개발되어 있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스토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잠재된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 스토리를 인식하고 발굴과 개발의 단계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꾸준히 연마되어야만 그 위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획에서 개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끌고 나갈 리더가 절대로 필요하다.

상품에 혼(魂)을 불어넣는 5대 요소

스토리텔링은 컨셉, 콘텐츠, 편익,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다섯가지 전략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컨셉(Concept) :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되어야하며 그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이 충족된 컨셉이 설정될 때 기업은 시대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콘텐츠(Contents) :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상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드리 햅번 슈즈’의 애칭으로 유명해진 것과 마릴린 먼로가 침대에서

꼭 입는 한 가지는 ‘샤넬 N5’ 뿐이라고 말해서 인기를 얻는 샤넬의 향수 등에서 스토리는 명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3.편익(Convenience) :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고객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력이 짧다.

4.소통(Communication) : 소통을 나누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또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5.문화(Culture) : 이제 상품의 질로만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상품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이다. 즉, 일반 커피보다 몇 십배 비싼 유명 브랜드 커피를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세련된 공간과 맛, 그리고 서비스를 고객취향에 맞춘 커피문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스토리텔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 커피를 마시며, 명품 핸드백을 메고 타이거우즈가 사용하는 골프용품을 사면서 자신감을 얻는다.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 문화를 사는 것이다.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에 스토리를 접목하여 고객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은, 비즈니스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경제 특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편리한 교통인프라 광양항, KTX, 고속도로, 공항
- 쾌적한 주거환경 주거·교육·의료시설 등 편리한 생활환경
-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 및 수려한 자연환경
- 최적의 산업인프라 POSCO 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